

韓南大學의 國際交流 프로그램

崔 正 福
(韓南大 國際交流委員長)

1. 머리말

한남대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록 자체가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줄 안다.

또한 이 글은 각종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현재의 업무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보겠다는 의도로 객관적인 면을 중시했다. 國際交流 업무를 주관하는 자로서 어쩔 수 없는 편견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 점을 의식하여 가능한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 서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필자가 다른 대학들의 국제교류 업무를 알지 못하므로 본 대학의 프로그램이 모범 사례가 될는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일런지 모른다. 어느 경우이든 상관없이 여러 가지 建設的인 批評과 助言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 대학은 1956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설립의 배경은 지금까지 본 대학의 성격에 영향을 끼쳐 온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이것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를 결정짓는 준거가 되고 있다. 즉 30여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와 國際性 그리고 基督敎的 世界觀의 追求는 본 대학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 글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본 대학의 국제 교류 업무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약속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 교류 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그리고 소망스러운 발전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의 맺는 글로 마치하고자 한다.

2. 國際交流 業務

본 대학의 국제 교류 업무는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것은 姊妹大學 關係, 交流留學生 制度, 校費留學生 制度, 韓國學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行·財政 支援 등이다. 물론 이 다섯 가지는 너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엄밀하게 구분될 수는 없으나 독자들을 위해 편의상 나눈 것임을 밝혀둔다.

1) 姊妹大學 關係

현재(1989.11.25) 본 대학의 자매 대학은 모두 14개 대학과 1개 연구소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8개 대학, 필리핀 2개 대학, 자유중국 1개 대학과 1개 연구소, 서독·태국과 일본이 각각 1개 대학씩이다(〈표 1〉참조).

姊妹大學 체결 연대를 보면, '80년 이전이 1

개 대학, '81~'83년 사이가 2개 대학, '84~'86년 사이가 3개 대학과 1개 연구소이고, '87~'89년 최근 3년 사이에 8개 대학과 자매 관계를 체결하였다. 이는 본 대학 자매 대학 프로그램의 역사가 매우 짧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솔직이 시행 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관계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教授交換, 教職員 및 學生의 交流인데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년에만도 미국 Queens 대학, Lynchburg 대학, Maryville 대학, 필리핀 국립대학, 일본 시코쿠대학 등에서 교수 10명, 직원과 학생 52명이 단기간 본 대학을 방문하여 1주일 정도의 세미나를 가졌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경비로 호텔에 투숙케 하고, 대학에서 주로 한국을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했다. 또 어떤 그룹은 본 대학 재학생 집에 민박을 시켰는데 관리하기에 문제가 많았고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지만, 단기간내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귀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을 알았다.

대만의 토지개혁훈련소는 '85년 11월 자매 관계를 체결한 후, 지금까지 300여명의 교직원과 지역 인사들이 단기 연수에 참가하는 혜택과 함께 대만 전역을 여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일본 시코쿠대학과의 관계로 지난 10년 사이에 400여명의 교수, 직원, 학생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상호 방문하였다. 여기서 400명이라는 양적인 규모의 교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 대학의 교류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필자는 이 점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다. 매년 양 대학에서 번갈아 가며 교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학생들끼리의 세미나와 교직원 연수단을 정기적으로 교환하였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이었으나, 자매 관계 10주년을 맞은 금년부터는 학과 차원으로 집행 기관을 낮추어 교류의 질을 높

〈표 1〉 자매대학 및 연구소 현황

자 매 학 교	국 명 및 위 치	체결일자
시코쿠학원대학 (四國學院大學)	일본 Zentsuji-Shi Kagawa-Ken	78.10.26
St. Andrews Presbyterian College	미국 North Carolina (U.S.A)	83.11. 2
Lynchburg College	미국 Virginia(U.S.A)	83.11. 3 86. 5.17 재조인
동하이대학 (東海大學)	자유중국 대중시 (R.O.C)	84. 1.22
University of PuertoRico Cayey Univ. College	미국 PuertoRico (U.S.A)	84. 6.27
California State Univ.	미국 Long Beach(U.S.A)	85. 3. 9
Seattle Pacific Univ.	미국 Seattle, Washington	87.3.27
Queens College	미국 North Carolina (U.S.A)	87. 5.27
King College	미국 Tennessee (U.S.A)	87.10.21
Bangkok Univ.	태국 Bangkok (Thailand)	88. 1.14
De La Salle University	필리핀 Manila(Philippines)	87.10.30
Maryville College	미국 Tennessee(U.S.A)	88.11.15
Fachhochschule Wilhlmshaven	독일 Wilhlmshaven (Germany)	88.11.24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Manila(Philippines)	89. 2.10
자유중국 토지개혁훈련소 (L.R.T.I.)	자유중국 Taoyuan, Taiwan. (R.O.C.)	85.11.13

이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금년은 양 대학의 영문학과가 주관이 되어 양 대학의 영어교육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으며, 내년에는

본 대학의 地域開發學科와 시끄�피대학의 社會福祉學科가 공동 주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이기에 교통비나 거리 등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과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대학이라는 共通性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결과이지만, 가장 만족스럽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2) 交流留學生 制度

교류 유학생 제도는 본교 재학중인 2~3 학년 중에서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여 자매 대학에 파견하여 1 학기 또는 1 년간의 短期 留學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취지에서 외국 자매 대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84 년 이후 지금까지 본교에서 파견된 교류 유학생 수는 모두 30 명으로 미국, 일본, 필리핀에 있는 자매 대학에서 유학을 했으며, 본 대학에서도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4 개국에서 11 명의 학생들에게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였다(〈표 2〉참조).

〈표 2〉 교류 유학생 실적(1984~1989)

연도	구분	
	본교에서 파견	본교에 유학
1984		대만 1명
1985	일본 5명	
1986	일본 8명	대만 1명, 일본 1명
1987	일본 4명	미국 1명, 일본 1명
1988	미국 2명, 일본 4명	
1989	미국 3명, 일본 2명, 필리핀 2명	일본 2명, 미국 3명, 필리핀 1명
계	3개국 30명	4개국 11명

교류 유학생들은 소속 대학에 등록을 하고, 자매 대학에서 받은 학점을 상호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학비 감면과 식비 등의 보조를 주선하고 있으며, 본 대학에서는 학비 감면의 혜택과 민박을 알선해 주고, 월 15 만 원씩 식비 보조를 하고 있다. 항공비를 포함하여 기타 부족한 비용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보다 더 좋은 요건도 있다. 가령, Lynchburg 대학에 파견한 학생에게 생활비, 보험료, 책 값 등 연 14,600 달러의 특별 장학금이 제공되고 있다.

King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에게는 그 대학 이사이며, 본교 국제 자문 위원의 한 사람인 Hatcher 박사가 매년 2 명의 본교 학생에게 왕복 항공비와 숙식비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시끄피대학에 파견되는 교류 유학생들은 교포 실업가인 양일생씨가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이고 비공식적인 도움들이 교류 유학생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3) 校費留學生 制度

교비 유학생 선발 시험은 1985 년부터 시작되었다. 본교 재학생의 學問 精進意慾 鼓吹와 國際化 時代에 副應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게는 외국 留學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꿈을 現實化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매년 10 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해 왔다.

현재 외국어는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등 5 개 국어 중 택일하여 필기 30%, 듣기 20%, 논문 40%, 면접 10%의 배점으로 선발 시험을 치르고 있다. 시험 자격은 3,4 학년 재학생으로 학교 성적 평점이 3.75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 선발된 학생이 유학을 가서 석사 과정에 등록되던 연 200 만 원씩 2 년에 걸쳐 400 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난 5 년에 걸쳐 49 명을 선발하였는데, 연도별·희망 국가별 인원 수는 뒤의 〈표 3〉과 같다.

4) 韓國學 프로그램

韓國學 프로그램은 2 년 전부터 구상해 왔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1989 년 9 월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4 명의 외국 학생(미국 3 명, 필리핀 1 명)과 본교 신청자 중에서 선발된 14 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 韓國語, 韓國 經濟, 東亞細亞史, 韓國 社會 構造와 개인 프로젝트 등 5 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수강 과목 학점에 대해 이수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본교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기 교양 과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국상을 인식시켜 주는 데 있다.

〈표 3〉 교비 유학생 현황(1985~1989)

연도	국가				대만	호주	독일	프랑스	필리핀	영국	캐나다
	미	국	일	본							
1985	9	8	5		4				7		
1986	9	8	6		2	1			1		1
1987	9	8	7		3	2	2	2	1		
1988	9	8	8		6	1	1	1	1	1	
1989	9	8	9		3			1			
계					14	1	10	4	4	4	10

〈표 4〉 국제 교류 예산(1987~1989)

(단위: 천 원)

연도	항목	국외 여비	국제 교류 행사비	교비 장학금	국제 학생 교류 지원비	국제 교류 위원 회의비	계
1988	8	15,000	16,000	30,000	7,000	500	68,500
1987	7	20,000	11,800	20,000		300	52,170

그러나 부수적으로 본교 학생들에게 미치는 적극적인波及效果도 크다고 본다. 가령, 교내에서 동료 외국인 학우를 통해서 外國文化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세계관을 넓히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잇점을 들 수 있다.

한국학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걸친 교육·학문적 내용 결정은 따로 구성된 한국학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기타 행정적인 것은 기획처에서 보조한다.

5) 行·財政 支援

국제 교류 업무는 행정적으로 기획처 부처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부처장은 자동적으로 국제 교류위원장을 겸임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조언과 자문을 국제교류위원회로부터 수용하여 이를 집행하고 있다.

각종 국제 교류 업무를 추진키 위한 지난 3년간의 예산은 〈표 4〉와 같다. 1988년에 31%, 1989년에 23%의 예산 증액을 보이고 있다. 국제 교류의 실질적인 경비가 모두 이 예산으로 충당된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 연합장교단의 지원도 상당한 몫을 차지했으나, 외부 지원금이어서 여기서는 제외되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제 교류 업무가 비교적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본다. 또 이것은 국제 교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총장 이하 행정팀들의 政策的 支援 意志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展 望

앞서 언급했던 업무에서 나타나는 현안 문제와 발전 전망 및 계획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과력해 보고자 한다.

1) 姊妹大學 關係

기존 자매 대학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의 자매 대학 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환점이 있어야 하겠기에 최소한 다음 세가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미국 대학 중심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 대학들과의 교류를 넓히며, 특히 인접한 아시아 대학들과의 교류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漸進的인 擴大이지 서류상·형식상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현재는 자매 대학의 상당 수가 대학원이 없거나 영세한 상태여서 대학원 중심의 학문적 교류는 미흡한 형편이다. 앞으로 자매 대학 선정시에는 대학의 규모와 학과의 다양성 및 대학

원 개설 여부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겠다.

셋째, 현재는 주로 기독교대학들과의 자매 관계이며, 이러한 요소가 기여하는 바도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 종교의 영향권 아래 있는 대학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한 방안이 되리라고 본다.

2) 交流留學生 制度

기존의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이외에 아시아 국가 5 개 대학에만 매년 10 명씩의 교류 유학생을 보낼 계획으로 1994 년까지의 예산 확보를 위해 각업중이다. 본교에서 파견하는 교류 유학생과 수용해야 할 외국 학생들의 수가 증가될 것을 감안할 때,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적절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첫째, 외국 학생들의 기숙사 부족이다. 현재는 민박 유치로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될 수만 있다면, 외국 학생들에게는 단시일내에 한국의 가정과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적극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로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파견 유학생이 현지에서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자매 대학에서 졸업하려는 예가 있어 행정적으로는 물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선발 기준이 까다롭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주제이다. 현재 규정은 평균 학점이나 외국어 실력, 성품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각 자매 대학으로 파견되는 본교의 대표자로서 특히 초창기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겠다는 전략적인 면도 없지 않다. 다만 전학년 성적 평점 3.75가 너무 높다면, 시험 실시 전 2 학기간의 성적 평점을 3.75로 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본다.

3) 校費留學生 制度

이 프로그램에 관해 크고 작은 비판들이 있지만, 대부분 바르게 홍보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여기서는 두 가지 측면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교비 유학생 선발 방법에 대한 문제

다. 그중 하나는 5 개 외국어 시험간의 난이도를 무시하고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고, 다른 하나는 논문 배점 40%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현행의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는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소수의 졸업생들에게 많은 유학 보조금의 혜택을 주기보다는 다수의 재학생에게 그 혜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民主的인 節次와 方法을 통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교비 유학생 제도의 파급 효과는 직접 혜택을 받는 소수 학생을 넘어서 많은 재학생들의 勉學 분위기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필자의 견해이다.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현행 수준(연 10 명 내외, 개인당 400 만 원)에서 확대되지는 못하더라도 축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프로그램의 결실은 다소 늦더라도 모든 韓南 가족에게 비용 이상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4) 韓國學 프로그램

시행 착오를 거쳐 겨우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키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 등 제도적 정비 작업에 시간의 테반을 허비하고 정작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소홀한 감도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기획처 소관으로 되어 있어 학사 행정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첫째, '90 년부터는 아시아 5 개 자매 대학에서만 최소 10 명의 학생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2 년 정도 더 경험을 축적한 후에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 및 해외 교류 대학생들을 위한 집중적인 여름/겨울 학교 개설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필리핀 국립대학에 한국학 강좌를 정규 학점 과목으로 개설하고, 앞으로 2 년 동안 본 대학 교수들이 가서 강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자매 대학간의 교류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서서 양 국가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것이고, 또 경비 소요도 있으므로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과 학술진흥공단의 협조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본 대학의 입장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잘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고, 한국학 강의를 담당할 교수를 혼란시킨다는 차원에서 파견할 예정이다.

셋째, 한국학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대학내에 모든 강의와 행정이 영어로 운영되는 특수 국제대학의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도 영어권 교수가 15명이 있고,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한국인 교수도 있어 단순한 기대라기보다는 現實性 있는 비전이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옛 방식에의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 대학 초창기에는 외국 교수들의 비중이 많아 강의나 행정이 영어로 운영되었다. 가령, 영문학과와 의 경우 타자 실습이나 영어 회화, 영작 등 기초 과목은 물론 <세익스피어> 강독 등 전공 과목까지 영어로 강의를 했었다. 화학과, 물리학과에서도 몇 강좌는 그렇게 진행되었다. 물론 저학년일 때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갔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졸업생들이 국내의 각계 각층에서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방법의 교육이 주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5) 行·財政 支援 體系

현재 기획처에 소속을 두고, 부처장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국제 교류 업무를 독립시켜 국제교류처로 승격·신설하려는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앞서 언급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체계이다.

公開豫算 체계하에서 국제 교류 업무를 위한 예산 규모의 적합성,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정당성에 이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 집행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관례에 따라 또 행정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전년 예산의 규모와 집행이 근거가 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현재의 국제 교류 업무는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투자된 만큼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지속적인 국제 교류 업무의 확대를 기대한다면, 그

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필자의 견해이다.

4. 맺는 말

본 대학의 역사는 짧고 국제 교류 업무의 경험은 더욱 일천하다. 겨우 걸음마 단계로서 배우고 투자하는 기간이다. 國際交流 프로그램이 본 대학을 알리고 어떤 혜택을 구하는 현실적인 목적보다는 國家間에 共通 關心事를 理解하며, 기존의 異質性을 克服하려는 높은 뜻을 향해 계획되고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본 대학의 여건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서두르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집행코자 한다. 또한 국제 교류 업무라고 해서 캠퍼스내의 다른 교내·국내 프로그램과 二元的이거나 相衡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多樣化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소규모 학부 중심의 기독교 대학과의 자매 관계는 매우 인간적이고 비공식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하며, 이러한 관계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와 병행해서 대학의 규모와 학과의 다양성, 대학원 중심의 학문적 교류, 교환 교수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확장되어야 하겠다. 자매 대학 관계, 교류 유학생 제도, 교비 유학생 제도, 한국학 프로그램, 행·제정 지원 체계 등은 사실 따로 생각할 수 없는 연결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영어로만 강의되는 국제 대학이 운영될 때, 모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上昇 效果가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그러한 비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제교류처의 신설과 이를 제도권 속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규정의 보완, 현실적인 재정 지원 등은 본 국제 교류 업무의 성패를 가늠하는 관건이 되리라고 본다.

모든 프로그램은 그 目的을 분명히 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合理的이고 分析的인 評價가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평가는 교내뿐만이 아니고 관계된 자매 대학의 협조를 얻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얻은 결과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